

학습과 여행이 함께하는 활력도시 담양

전일광장

이기연
한국지방정부연구원장
교육학박사



최근 외국 대학생들이 '런케이션(Learncation)'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 클래식 음악 동호회 '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 학생 93명과 예일대학 아카펠라 동호회 학생 21명이 다양한 문화를 배우며 여행하기 위한 곳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 런케이션은 배움의 '러닝(Learning)'과 휴가·여행의 '베케이션(Vacation)'을 합친 단어로 단순 관광을 넘어 해당 지역의 문화 등을 배우는 '교육 여행'을 의미한다. 미국과 유럽인들은 해외 여행을 하며 단순한 관광을 즐기는 것보다 해당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는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해외 MZ 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세대로 확대되고 있다. 젊은 층이 주로 한국의 K팝, 영화, 드라마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의 전통문화, K-Food 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다. 서양 문화권에 거주하며 쉽게 접하기 힘든 동양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여

행은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콘셉트이고, 한국이 런케이션을 위한 국가로 주목받는 이유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고국의 지인을 초청해 함께 여행하는 인기 TV 프로그램을 보면, 외국인들은 자신이 겪어보지 못했던 색다른 체험을 할 때가 가장 즐거워하고, 의미있게 생각하는 걸 쉽게 볼 수 있다. 식당에서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 사찰에서 다도를 경험하고, 김치나 잡채를 요리하고, 태권도와 택견을 배우는 체험은 매우 오랫동안 기억될 경험일 것이다.

최근 전남도 담양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도전했다. 담양군은 교육발전특구 방향을 "포용적 다문화 교육, 배움과 여행을 향유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담양의 빛깔을 담은 일자리를 연계하여 향촌교육을 완성하는 것"으로 정했다. 담양군은 2007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그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다. 슬로시티라서 가능한 슬로푸드와 슬로라이프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배움과 여행이 함께 가능한 런케이션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다. 이에 담양군은 로열티를 받고 수출 중인 딸기를 비롯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슬로푸드, 전국 유일의 가사문화관과 인문학·전통정원 특구를 기반으로 인문학과 생태환경 교육

을 교육발전특구의 추진과제로 포함하였다.

담양군이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면 담양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가사문화와 연계한 독서인문교육, 대나무 악기·정죽공예 명장들에게서 배우는 진로교육, 국가기관인 한국정원문화원과 연계한 환경교육 등 지역의 자원을 교육 과정에 적용한 다채로운 배움을 경험하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담양의 특산품을 활용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요리해보며 향유 진로를 선택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경험한 교육과정은 담양지역의 축제를 통해 뽐내볼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된다.

매년 담양군을 찾는 관광객이 15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런케이션(Learncation)'은 가고 싶은 도시 담양의 특색을 살리고 이를 교육과 연결시켜 지역에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중요한 교육 테마다. 담양군이 가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기관은 교육의 주된 자원이다. 마을학교를 중심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특색있는 방과후활동은 학교 교육과 연결되어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교육 기반이다. 이렇듯 담양군이 가진 특색있는 배움의 과정들은 지역의 학생들을 비롯하여 외국인들에게도 각광받을 만 하다. 학습과 여행이 함께 어우러지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담양군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社說

25살 앓던 청년의 죽음 국가가 책임져야

가혹행위로 사망 가능성 제기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25세의 나주 출신 청년이 무리한 운동 등의 이유로 근육이 손상되는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의 원인이 가혹행위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또 다른 훈련병이 숨졌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입대한 젊은이가 되려 국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비통하다.

28일 군에 따르면 사망 훈련병을 부검한 결과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일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확한 사인은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게 육군 측 입장이다. 횡문근융해증은 근육이 과사되면서 세포에 있는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방출되는 증후군이다.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원해서 군에 입대한 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가혹한 군기훈련을 받았는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과 군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한 병사의 사망은 개인의 손실을 넘어 가족과 사회에 깊은 슬픔과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어느 곳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훈련,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군 훈련소가 오히려 청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도 믿겨지지 않는 일이다. 군대에서 인명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와 가족은 가슴이 새카맣게 타 들어 간다. 당장 이번 사건 이후 자녀를 입대시킨 가족과 입대를 앞둔 청년층의 불안과 분노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

훈련 중 병사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훈련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부적절하다는 반증이다. 군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피어보지도 못한 앓던 청년들의 죽음에 대해 국가도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간호사를 꿈꾸던 25세 청년의 허무한 죽음이야말로 우리 군과 군 통수권자의 무능과 무책임 을 보여주는 비통한 사건이다.

쇠락한 아시아음식거리 이대론 안된다

동구, 차별화된 청사진 내놔야

광주 동구 아시아음식문화거리가 10년 넘게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됐지만 입점 음식점이 줄 폐업 하는 등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아특별 개정으로 사업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됐지만 이번에는 광주시의회가 활성화 관련 용역비를 삭감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광주 동구는 지난 4월 2024년 1회 추경예산안에 상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활성화 연구 용역'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해 동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했다. 동구의회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지난 1월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지금 까지 실적 매우 저조했다'며 시비로 편성된 2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이에 따라 연구용역도 잠정 연기됐다.

매년 10억 원씩 총 145억 원이 투입되는 광주 동구 아시아음식문화거리

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무엇보다 주변 상권이 침체되고 코로나로 인한 외식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실적을 내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야간의 클럽 문화가 공존하는 상권 특성상 베트남 쌀국수 같이 주로 점심 장사를 겨냥한 가게들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동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인도·대만·홍콩·필리핀 등 세계 각국의 음식을 파는 점포 15개소를 유치했지만 10곳 가량이 단기에 폐업했다. '음식거리로서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 시민들도 외면했다.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사업실패는 뼈아프다. 용역예산을 삭감한 광주시의회 의회의 판단도 수긍한다. 다만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한번의 기회는 필요해 보인다. 사업 연장으로 5년의 시간을 번 만큼, 상권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에도 치밀한 계획 없이 대응할 경우엔 마땅히 지탄받아야 맞다. 동구가 광주시의회를 설득할 차별화된 청사진을 내놔야 시 의회도 응당한 조치에 나설 것이다. 쇠락한 아시아음식문화거리를 제대로 방치할 순 없지 않겠는가.



사진으로 보는 세상

27일(현지시각) 영국 글로스터셔주 테트베리에서 연례 '울색 레이스'(Woolsack Race)가 열려 참가자들이 울색(양털 포대)을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고 있다. 1972년 시작된 이 대회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성인 남자는 27kg, 여자는 16kg의 포대를 메고 약 256m 코스 언덕을 달리며 어린이 부문도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가운데 흐르는 강, 한강은 대한민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을 상징한다. 하지만 한강은 흥미롭고 경이적인 역사가 있다. 한강은 태백산맥의 금대봉 정상부 북쪽 비탈에서 발원하여 강화해협 부근의 어귀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분류로 한다. 분류 총연장은 494km에 달한다. 1960년 이전에 모래톱 등이 존재했으며 매우 깨끗했다. 하지만 근대화·산업화로 인해 한강의 수질은 심각하게 악화됐다.

수백 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의 강물을 깨끗하게 회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강은 기적을 이뤄낸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한강을 대변하기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한강 개발사업(1982~1986)을 통해 한강에 자연스럽게 흐르던 물을 댐 형태로 만들어 수위를 조절했다. 한강 고수부지 일대를 시민 공원으로 조성하고 88 올림픽대교를 착공해 김포공항~잠실 주경기장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에도 국가주도의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한강 상류를 그린벨트로 개발을 제한하고 오염 유입도 차단했다. 시민들도 환경과수꾼을 자처해 환경보호에 앞장섰다. 그 결과 한강은 수질이 개선돼 오늘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깨끗한 강으로 거듭났다.



한강의 기적과 센 강

프랑스가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을 목전에 두고 고심에 빠졌다. 수도 파리를 가로지르는 센 강 수질 때문이다. 이번 파리 올림픽 개최식과 철인 3종 수영 종목, 오픈 워터 스위밍 등을 센 강에서 치를 계획이다. 문제는 수질인데 센 강은 지난 100년간 수질악화로 입수가 금지돼 있다. 프랑스 당국은 대한민국처럼 올림픽을 계기로 센 강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14억 유로를 들여 정화 작업에 들어갔지만 수질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센 강은 이미 쓰레기와 오물, 박테리아와 대장균으로 오염된 상황에서 입수 가능한 수준으로 오염된 상황에서 입수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정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프랑스가 대한민국의 한강을 본보기로 삼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무언가 착각한 듯하다. 100년 넘게 더럽혀진 센 강을 불과 1~2년 새에 입수가 가능한 수질로 개선한다는 발상은 무모해 보인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극복해 만든 기적이며, 한강의 수질도 반세기 동안 이어진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게 써내려간 역사가 바로 '한강의 기적'이다. 기적은 수많은 노력과 인고의 시간이 빚어낸 드라마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